

# 전남도 시니어 합창경연...어르신들 환상의 하모니 선보여

### 22개 시·군 25개팀 참가 목포 풀잎합창단 최우수상

전남지역 어르신들이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인 제6회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에서 목포시 풀잎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사진>

전남도는 시·군 합창단 25개 팀 등 800여 명이 참여한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가 최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음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명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2015년부터 시니어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첫 해인 2015년 14팀으로 시작했지만, 22개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어르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오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고 3년만에 열렸다.

경연 결과 '꽃파는 아가씨'를 부른 목포시 풀잎합창단이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나주시 배꽃



소리 합창단 등 3팀, 장려상은 장흥군 정남진시니어 합창단 등 3팀이 수상했으며, 상장과 부상으로 트로피가 수여됐다.

9월 현재 전남지역 노인인구는 45만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25.0%를 차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병무청, 국민 불편 해소 제안 우수 5건 선정



광주전남병무청은 최근 병무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해 자체 제안 경진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총 19건으로 병무청은 이중 창의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했다. <사진>

병무청 관계자는 "올 한해 광주전남병무청 자체 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된 제안은 71건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병무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제안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발레단과 예술자료 수집·보존 협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 아르코예술기록원은 국립발레단(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과 문화예술 분야 자료의 수집·보존·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을 최근 단장 겸 예술감독 사무실에서 체결했다. <사진>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예술자료 수집과 보존을 위한 기증과 위탁 ▲ 예술자료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 협력 ▲ 예술자료 공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등 연계사업 협력 ▲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이다.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올해 60주년을 맞이했다. 국내 최정상 무용수 80여 명과 함께 세계적인 명작 및 고유 창작 발레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해직기자' 출신 박실 전 의원 별세



1980년 해직기자 출신으로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진 1985년 2·12 총선 신한국당(신민당) 들끓을 이끌고 3선 의원을 지낸 박실(朴實) 전 의원이 2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3세.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녔고, 대학생 때 4·19 시위에 참여했다.

1963년 한국일보에 들어가 정치부 차장 시절인 1977년 한국기자협회 16대 회장을 지냈다. 1980년 신민당 제2차 헌법개정 공청회에 '한국기자협회 고문' 자격으로 참여해 '직선제 개헌'과 함께 헌법 전문에 언론 자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제 해직됐고 1984년 정치활동 규제 2차 해금 대상에 포함됐다. 그해 민주협 세력과 구 신민당 계열이 종횡교섭 신한국당 창당에 관여했고,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립 산수도서관, 구수환PD 초청 북 콘서트 진행



광주시립 산수도서관(관장 조인숙)은 지난 28일 5층 다목적실에서 구수환 PD(사)이태석재단 이사장)를 초청해 다큐 '부활' 상영과 신간 '우리는 이태석입니다'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SBS 뉴스특보
8	25 아침마당		50 생방송 오늘 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00 SBS 뉴스특보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좋아	00 SBS 뉴스특보
11	00 100인의 리딩쇼 지구를 읽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법대로 사랑하라(재)	15 헬로킴즈 공학교실 30 와썹 프리매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재)	00 SBS 뉴스특보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00 네모세모
2	00 KBS 뉴스 10 남도 지오그래피(재)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고양이 목에 마이클GO(재) 55 UHD 숨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살 몽계공형(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연중 플러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MBC 다큐프라임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특별기획 내 손안의 마한 30 광주MBC 보다	50 민선8기, 시장 군수에게 듣는다 <영양>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커튼콜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치열업
11	30 KBS 뉴스라인	05 개는 훌륭하다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동네 한 바퀴(재)	45 아이 러브 스포츠	10 스포츠 매거진 50 좌충우돌 만국유랑기	4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3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00 생방송 뽀뽀 해결단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9:00 말괄량이 삐삐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30 한국의 둘레길
07:15 출동! 슈퍼윙스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50 바닷가 사람들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똥동맹 유치원	14:45 바닷가 사람들	<해피 해피 라오스>
08:20 로보가 폴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오지 마을 촌(村)캉스
08:35 그린조끼 구조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50 피파볼 피파볼	16:15 페파 피그	<슬기로운 취미 생활 1부>
09:05 슈퍼투퍼 잉글리시	16:25 그린조끼 구조대(재)	애 힘들게 오르라고 묻는다(면)
09:20 빅 블루	16:40 똥동맹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5 타타와 쿠마	17:00 EBS 뉴스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40 우리집 유치원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31일(음 10월 7일 丁巳)

<p>36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를 제공하리라. 48년생 범을 잡으려거든 범의 굴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60년생 모순은 철저히 배제하라. 72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84년생 혹독한 겨울 뒤에 화사한 봄날이 찾아드는 이치이다. 96년생 진솔함이 생산적인 규범에 이르게 한다. 행운의 숫자 : 43, 60</p>	<p>42년생 거북이 등에서 털을 뜯으려는 격이다. 54년생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으리라. 66년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78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사극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90년생 미혹되어 제대로 걸러들면 굉장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02년생 승관을 잘 들 여보아 당황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8, 54</p>
<p>37년생 예상해 왔던 구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49년생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될 일이나 예외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1년생 안전하지 못한 양태이니 방심하지 말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73년생 부수적인 것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85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림이 없고 효과도 굉장하다. 97년생 즉시 보완하라. 행운의 숫자 : 01, 57</p>	<p>43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꼭 이행해야 한다. 55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67년생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판세이니라. 79년생 학수고대해 왔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91년생 능히 집착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03년생 노력에 비해 대가가 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0, 65</p>
<p>38년생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를 놓치지 말라. 50년생 전체 중에서 반쯤되는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는 크다. 62년생 천 길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이다. 74년생 의문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 86년생 이제 결말을 지어야 할 단계가 되었으니 마무리 말라. 98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17, 75</p>	<p>44년생 타산지석으로써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56년생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후일을 기약함이 낫다. 68년생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하여 당황할 수 있다. 80년생 대중소이치는 법이다. 70년생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 92년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04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3, 88</p>
<p>39년생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본다. 51년생 사정 과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63년생 파격적인 앙상을 열 수 있으니 변화의 조짐에 주목해야 한다. 75년생 발전의 단계에 진입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87년생 미리 대처해 나간다면 방지하리라. 99년생 객관적 타당성만이 소기의 성과를 낳으리라. 행운의 숫자 : 18, 73</p>	<p>33년생 부실함은 단순한 속단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45년생 생 최고의 대안은 경험과 전문에서 나오는 법이다. 57년생 힘들이 만들에 비례하여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69년생 급히 손질해야 할 부분이 보이니 바로 조치하라. 81년생 중요한 일이 논의될 것이니 놓치지 말라. 93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행운의 숫자 : 15, 84</p>
<p>40년생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 52년생 확대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대하라. 64년생 최선을 다 하면서 절실히 갈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76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88년생 하찮게 여겨왔던 바의 역할이 크다. 00년생 상호적이나 만큼 일방만을 맞출 일이 아님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0, 67</p>	<p>34년생 일관된 소신으로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애통을 태울 것이다. 46년생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대중소이다. 58년생 실계를 잘해야 구조물이 제대로 지어지는 법이다. 70년생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자극이 보인다. 82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니라. 94년생 평생을 도모할 정도는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76</p>
<p>41년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결코 편지 않을 것이다. 53년생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 65년생 소폭적인 이동수가 비칠 뿐이로다. 77년생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있으니 절반은 이른 셈이다. 89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음을 알라. 01년생 분명히 장교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0, 83</p>	<p>35년생 대세에 순응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47년생 머지않아 적용하게 될 것이니 묵묵히 일하라. 59년생 상식적인 선에서 강구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71년생 기대하여 왔던 이가 실망을 줄 수 있다. 83년생 미흡 하더라도 일단락을 짓고 불 일이다. 95년생 활기차게 추진 해도 되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31, 95</p>